

검은 옷의 남자는 몇 명의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렇게 얇은 스테인드글라스 위에 올라가면 깨져서 떨어진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지요. 상당히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 검은 옷의 남자가 바로 괴도 【렛테일】의 정체였던 겁니다! 하하하하!”

【경찰서장】은 팔짱을 낀 채 크게 웃었다.

그때 안쪽에서 【감정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경찰을 대동하고, 「무지개의 눈동자」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무지개의 눈동자」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우렁차게 선언하며 선글라스를 추켜올렸다. 방을 나올 때도 바디 체크를 받았고, 감정실 내부에도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리고 【부호】에게 「무지개의 눈동자」를 건넸다.

너희를 제외한 관계자들은 사건이 해결되었다며 크게 기뻐하고 있다.
과연 정말 그럴까?

너희는 함께 기뻐하는 척하며,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다.

(이 PDF를 닫고, 카드 조사를 시작해 주세요.)